

##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호스피스

박재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호스피스교육연구소장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호스피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죽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호스피스는 바로 삶의 이야기라 말하고자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은 호스피스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교육연구소는 “인간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도주의와 총체주의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말기 환자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으로 도우며 그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해 총체적으로 돌보는 것”에 철학과 목적을 두고 WHO로부터 협력센터로 인정을 받아 호스피스교육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어 벌써 12년을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호사,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고, 국제적인 학술대회와 기관 견학, 정보 교환을 통해 선진국의 호스피스 정보를 받아들여 왔으며, 국내에서는 학술, 연구, 출판,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이러한 활동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1980년대 이후 많은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많은 환자들이 임종이 가까워져서도 심신의 고통으로 질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평화롭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호스피스 관련 협회의 연합회의를 통해 호스피스 법제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결실이 당장 눈앞에 두드러질 만큼 신속하게 드러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변화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은 호스피스 기관과 종사자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게 되며, 이러한 기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가 또한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 개인은 물론 저희 교육연구소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호스피스 저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 함께 많은 정보를 나누는 기회와 자리가 필요하며, 호스피스 교육은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 모든 국민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병원이나 시설 뿐 아니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미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과 기관간의 연계 체계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확대된 개념으로써 완화 의료적 돌봄은 의학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진단으로부터 개입함으로써 진료의 포기가 아닌 고통의 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삶의 여정인 호스피스 돌봄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말기 환자의 총체적 돌봄은 신체적 고통의 완화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돌봄과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즉, 병과 죽음을 생명의 원천으로 바꾸어주는 영

적 돌봄을 포함합니다. 호스피스 돌봄은 인간 돌봄과 이웃 사랑의 최상의 꽃이며,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 돌봄의 도구로 사용하므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호스피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며, 우리 보다 앞서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인간애를 전달하는 호스피스가 더욱 발전하도록 모두 힘을 합하여 나아갑시다.

## 둥글게 사는 사람

지구가 둥글고  
태양이 둥글고  
달이 둥근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둥글게 살리는  
무언의 표상입니다.

둥글게 일하십시오.  
모나게 일 하면 다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둥글게 즐기십시오.  
모나게 즐기면 끝에 가서 꼭 싸우게 됩니다.

둥글게 말을 하십시오.  
모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둥근 사람은 친구가 찾아오고  
둥근 사람은 볼수록 넉넉합니다.

아무리 모난 마음으로 왔다가도  
둥근 사람의 따뜻함에 그만 녹아지고

아무리 큰 문제를 안고와도  
둥근 사람에게는 작아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지구가 둥글고  
달이 둥글고 해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발췌]